

유니콘 투자릿수 시대... 제2 벤처붐... 스타트업 '힐힐'

2020 희망을 쏘다 <10> 스타트업

벤처투자액 전년 비 22% 증가
유니콘社 11개, 獨과 공동 5위

각종 신산업 규제에 희비 엇갈려
공유주방·P2P 등 성장기반 마련
타다 등 모빌리티산업 발목 잡혀



컴업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11월28일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19 개막식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한 해 동안 스타트업계는 전 에 없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정부의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발표와 함께 벤처 투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니콘 스타트업도 11개를 돌파하며 세계 5위에 올라섰다. 반면, 타다 기소 등으로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논란의 중심에서 기도 했다.

◆제2벤처붐...4조 투자 돌파 가능성

정부는 지난 2019년 3월 6일 '제2벤처붐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힘입어 2019년 신규 벤처투자액은 4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2019년 벤처투자는 3조811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수치다. 정부와 업계는 지금까지의 투자 추세를 고려할 때 연간 벤처 투자

가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 7년 이내의 모험투자가 전체의 75.2%를 차지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도 1조599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276억원) 대비 30.3% 늘었다.

2019년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수는 11개로 독일과 함께 공동 5위로 올라섰다. 쿠팡·크래프톤·옐로모바일·L&P 코스메틱·우아한형제들·위메프·비바리퍼블리카·지피클럽·야놀자·무신사·에이프로젠 등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대규모 엑시트도 주목받았다. 지난해 9월 여기어때는 영국의 CVC캐피탈에 4000억원 규모로 매각됐고, 10월에는 AI 기업 수아랩이 미국의 코크넥스에 2300억원 규모로 인수

됐다. 12월에는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에 4조8000억원이라는 거액으로 매각되며 주목받았다.

◆규제 샌드박스·P2P법안 통과 vs 타다 기소·데이터 3법 국회 계류

2019년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되면서 스타트업들이 규제에 가로막혔던 신산업을 실험할 수 있었다. 스타트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대표적 사례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륙), 코나투스(반반택시),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등이다.

공유주방 '위륙'을 운영하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지난해 7월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받으면서 한 주방에 여러 개의 사업체가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유주방을 실현했다.

코나투스는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반반택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P2P 금융업계도 지난해 10월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으로 정식 입법화되면서 호재를 맞았다. 렌딧·8퍼센트 등 P2P 기반의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P2P 금융을 통해 핀테크를 넘어 금융업을 위한 기술이 아닌, 기술이 중심이 되는 금융업을 만드는 '테크핀' 스타트업의 탄생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여전히 규제에 발목 잡힌 업계도 있다. 모빌리티가 대표적이다. 지난 3월 택시업계와 카카오택시는 국회 중재로 자가용 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 카카오택시, 아디고 등이 서비스를 종료했다. 카풀 업체 풀러스는 회사가 중개료를 받는 대신 이용자가 드라이버에게 자발적으로 팁을 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11~15인승 렌터카 유상운송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모빌리티 스타트업 VCNC와 모기업인 쏘카는 지난 10월 검찰에 기소됐다. 여기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하면서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미래가 안개 속으로 빠졌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데이터 3법 통과 불발은 빅데이터·AI·핀테크 등 분야 스타트업의 탄생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스타트업 실적 압박 가능성

2020년에도 창업생태계로의 투자는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조성됐고, 정부가 1조5000억원 규모로 창업 정책 지원을 발표했다 때문이다. 그러나 위워크의 상장 실패 등을 통해 스타트업 업계에도 '실적' 압박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임정옥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우버가 IPO에서 충분한 주가가 안 나오고 있는 등 수익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어 매출을 내는 것뿐 아니라 수익성도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국내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익을 내지 못하면)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하는 등 곤란을 겪는 곳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금융시장의 위축과 정부 재정 확장에 따른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김홍일 디캡트 센터장은 "불경기에 들어서면서 성장성을 보는 벤처 투자 시장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 수 있고, 기업의 투자 여유자금도 줄어들 수 있다"며 "모태 펀드에서 정부 자금을 출자하는데 이를 운영할 민간 매칭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해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사업 축소하고 철수까지... 금리인하에 설 자리 '위태위태'

2020 대부업계 전망

대출 잔액 지난해 6월 이후 감소세
청년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늘어
공격적 영업보단 내실 다지기 만전



신와머니가 지난해 3월부터 대출 서비스를 중단했다. /신와머니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유난히 규모가 줄어들든 대부업계가 올해도 힘든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상위 업계 대부업체들은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한편 사업을 아예 철수하는 계획까지 세웠다. 또 정부의 포용금융 혜택이 금융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대부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대부업 대출 규모는 1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7조3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었다.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대부업계 규모가 줄어드는 배경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이 크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4%다. 지난 2002년 연 66%에서 꾸준히 내려왔다. 하지만 연 20%까지 낮추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힘입어 추가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최근 국회에서 연 15%까지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최고 법정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법정금리가 또 한 번 낮춰지면 대부시장은

하자마자 수요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당초 계획했던 2000억원의 공급 규모에서 최대 4000억원까지 확대된 바 있다. 햇살론17은 연 17.9% 금리의 고금리 대환 상품으로 700만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라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청년층 정책상품인 햇살론youth를 비롯해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더 많아지면서 대부업계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햇살론youth는 대학생, 미취업 청년 등의 자금으로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달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최대 1200만원 한도에서 연 3.6~4.5%까지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대부업체 평균 대출금리는 18.6%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올해 서민의 금융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서민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정책은 대부업체들의 잇단 사업 철수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신와머니는 신용대출 중단을 선언했고 2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4위인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조이)도 사업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유일하게 업계 3위인 리드코프만 양호한 실적으로 견디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산와머니가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러시안캐슈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업계의 경쟁이 완화되면서 리드코프가 수혜를 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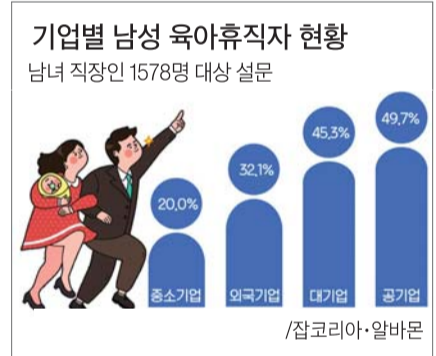
리드코프의 지난해 3분기 매출은 1160억원, 영업이익은 1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 54% 늘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회사의 외형 성장만 실적이다. 대체적으로 경쟁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내놓지 않자 저신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리드코프로 몰리면서 마케팅 비용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대부업계는 전반적으로 내실에 집중하는 사업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올 3월쯤 총회를 개최한 이후 예산을 승인받아 올 한해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업계가 전반적으로 대부업출발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들이 올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업체들도 현재 공격적인 영업보다는 규모를 축소해가면서 내실을 기하는 사업형태로 전략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올해 사업 계획도 역시 같은 기조로 수립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남성 직장인 10명 중 7명 "육아휴직 사용 의향 있어"

올해 2월 말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까지 가능해질 예정인 가운데, 부부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참코리아와 알바몬이 남녀 직장인 15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 직장인 10명 중 7명(70.5%)은 '배우자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5년 전인 2015년 같은 조사 결과(22.0%)와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남성 직장인들도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다'(11.1%), '눈치는 보이지만 사용할 수 있다'(50.5%)고 한 반면, '사용할 수 없다'(38.4%)는 응답도 상당해 아직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기업들의 시선이 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성직원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 분위기 때문'(40.6%)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용수 기자